광주 광산구 도산동 생가 인근에는 당시 창을 하던 국창 임방울 모습이 벽화로 형상화돼 있다.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21〉 국창 임방울과 광주 광산

망국의 설움 위로한 남도 恨가락

나주 명창 박재실 문하서 춘향가 등 전수

1929년 25세때 '쑥대머리'로 이름 알려

도산동에 임방울 생가·송정역에 기념관

매년 국악제…日·우즈벡 등 해외 공연도

저녁 방송되는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프로가 있다. 가요계의 전설을 모시고 레전드 노래를 듣는 방송이다. 젊은 가수들이 재해석해 부르는 당대 명곡들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명곡들은 그렇게 신세대 보컬리스트들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불후의 명곡은 가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사를 반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불후의 명곡과 전설이 존재했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 찬 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내가 만일에 임을 못보고 옥중 원귀가 되거드면, 무덤 근처 있난 독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쑥대머리' 중에서)

'쑥대머리'의 임방울(1905~1961). 그는 '춘향가', '호남가', '적벽가'를 불렀던 당대의 최고 명창이다. 남도가 자랑하는, 광주가 낳은 최고의 가객이었다. 임방울을 일컬어 국창(國唱)이라고 부른다. 흔히 판소리 최고의 창자를 명창이라 한다. 그렇다면 국창은 어떤 이를 지칭하는 것일까. 최고의 가객이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창이 바로 국창이다. 누구나 명창은 될 수는 있지만 국창은 요즘의 국민가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게와 명성은 현저히 다르다. 오늘의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국민가수와 달리, 국창은 가객 임방울에게만 붙여진 고유명사다.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차이는 '흔하다 흔한' 것과 '유일한' 것이라는 간극이다.

그 '유일함'은 재해석과 편곡의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원음의 감동이 감쇄된다. 오늘의 보컬리스트가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재해석해 부른다한들 원래의 맛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흥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임방울 소리는 임방울만이 낼 수 있다. 나라 잃은 설움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의 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그의 소리에는 '피를 쏟아내는' 수련의 과정을 거친 예술혼이 투영되어 있다. 그의 소리에 양념처럼 버무려진 전라도(송정리) 사투리의 맛은 결코 훈련으로 득할 수 없다.

"뱃속에서 바로 소리를 뽑아서 내뿜는 통성에 쉰 목소리와 같이 껄껄하게 우러나오는 수리성을 섞은 임방울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임방울의 '쑥대머리'는 독특한 더늠에, 강렬한 전라도 사투리로 애절하게 내어서 청중을 사로잡아버렸다." (임방울국악진흥재단, '국창 林芳蔚 삶과 예술')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는 임방울 생가가 있다. 생가 입구에는 당시 창을 하던 모습이 벽화로 형상화되어 있다. 어디선가 '호남가' 한 대목을 뽑아내며 그가 나올 것 같다. 짧은 검정두루마기에 자그마한 키, 질박한 인상을 한 그가 말이다.

그러나 생가에는 인적이 드물다. 한반도를 넘어 일본, 만주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국창의 생가라 하기에는 초라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이 절로 떠올려진다.

"이곳은 생가가 맞지만 사람은 살지 않아요. 송정 지하철역에 가면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임방울은 우리 광산이 낳은 국창이자, 남도가 자랑하는 최고의 예술가이지요."

마을 주민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일설에 '방울'이라는 이름(본명 임승근)은 당대 명창이 그의 소리를 칭찬한 데서 유래한다. "너야 말로 은방울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 없는 최고의 상찬이었다.

임방울의 소리 인생은 그의 외숙 김창환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김창환은 고종과 순종 때 명창으로,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는 독보적인 경지를 표현해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창환의 아들 명창 김봉이·김봉학도 명성이 자자했던 걸 보면, 임방울의 소리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는 말은 이에서 연유한 듯하다.

임방울은 소년 시절 나주 명창 박재실 문하에서 '춘향가'와 '흥보가'를 전수받는다. 청년기에는 공창식으로부터 서편제 소리를, 유성춘에게서 '수궁가'와 '적벽가'를 배웠다. 이후에는 지리산에 들어가 토굴을 파고 독공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25세 되던 1929년 조선명창연주회에 불후의 명곡 '쑥대머리'로 임방울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다. 그 즈음 '쑥대머리'와 '호남가'의 음반이 120만장이나 팔려나갔다 하니 그의 소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1960년 부산 공연 때, 임방울은 무대에서 쓰러진다. 목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다. 그의 장례식은 200여명의 여류 명창들이 소복을 입고 상두꾼이 되었다. 사는 동안 한 맺힌 소리를 토해냈던 명창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꽃처럼 고왔다.

가을이면 임방울국악제가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던 임방울국악제는 소리의 본 고장에서 열리는 국악의 향연이다. 광주광역시, 조선일보사, SBS 주최로 열리는 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명창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임방울 사후 25년이 지난 1986 년 송정공원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2003년에는 광주국악진흥회가 임방울국악진흥재단으로 통합되었다.

"임방울국악진흥재단에서는 매년 수상자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해외 공연도 올해로 5년째 접어든다. 그동안,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등에서 공연을 했다."

임방울국악진흥재단 유미선 과장은 "임방울 선생의 고귀한 예술정신을 되새기고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임방울판소리전집 CD출반, 국악 교실 등 다양한 전승·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방울은 목청 하나로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랬다. 그는 화려한 무대보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무대에 섰다. 시골 장터와 모래사장에서 그는 소리 하나로 남도의 혼을 불살랐다. 그는 당대에도 전설이었고, 현재도 전설이며, 앞으로도 전설로 남아 있을 불후의 명창이다.

그가 죽었을 때 알란 헤이먼이라는 외신 기자는 '국보를 잃은 큰 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임방울의 죽음은 한국에게만 슬픈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크나큰 손실이다. 그와 함께 한국문화의 위대한 일부도 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맨 왼쪽)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의 공연 모습.
(왼쪽)송정역 지하철 역사에 자리한 임방울기념관.